

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
2. 출장목적: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정책, 지역활성화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모색
3. 출장지역: 일본 혼슈 동북부 및 북해도
4. 출장기간: 2009년 7월 12일 ~ 7월 18일 (6박7일간)
5. 출 장 자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	초청전문연구원	박주영

6. 출장일정

일 정	주요 활동내역	비 고
7월12일	• 출국(인천 → 센다이)	
7월13일	• 이와테현청 - 기초생활권 단위의 지역발전책 계획수립 조사 - 지역내 연계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 조사 - 지역활성화 우수 사례 조사 • 지역간 이동(이와테 → 아오모리)	
7월14일	• 아오모리현청 - 특산품 개발과 브랜드 육성 - 기초생활권 정책수립, 정부지원체계조사 - 1·2·3차 산업간 연계협력 사례 • 네부타 마을 견학 • 사과농장과 연계한 미치노에키 견학 • 지역간 이동(아오모리 → 삿포로)	
7월15일	• 홋카이도 도청 - 농업·농촌비전 21 - 기초생활권 정책수립, 정부지원체계조사 • 홋카이도 대학 이자와 교수 인터뷰 • 지역간 이동(삿포로 → 노보리베쓰)	
7월16일	• 노보리베쓰 시청 - 관광자원의 활용과 PR 사례 조사 • 시 자체 여름 축제 견학 • 지역간 이동(노보리베쓰 → 후라노)	
7월17일	• 후라노 시청 - 지역활성화 사례 • 팜 도미타 견학 - 라벤더 농장 및 관련 상품 생산, 판매 현장 조사 • 지역간 이동(후라노 → 유바리)	
7월18일	• 지역간 이동(유바리 → 아사히가와) • 출국(아사히가와 → 인천)	

7.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

소속기관	직 급	성 명	연 락 처
이와테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기획실	과장	와타 타카하시	019-629-5621 wata-takahashi@pref.iwate.jp
아오모리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정책과	과장	요시히토 시부 타니	017-734-9455 yoshihito_shibutani@pref.aomori.lg.jp
북해도 농정부	과장	토시히코 하가이	011-231-4111 toshihiko.hagai@pref.hokkaido.lg.jp
북해도대학 농학연구원	교수	이이자와	011-706-2463 iizawa@agecon.agr.hokudai.ac.jp
노보리베츠시	시장	오가사와라 하루 이치	0143-85-2111

- 모리오카시에서 10km 떨어진 마을의 미우라상은 고지대 사면을 이용하여 경작. 유기질비료를 이용하여 토질을 개선하고 저농약 재배. 친환경재배 1위 수상
- 생산시스템
 - 15명이 분담하여 양배추, 무, 상추 재배
 - 미우라상이 대표. 14명은 파트타임 고용
 - 고령노인과 여성, 신체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
- 유통: 직거래
 - 세븐일레븐, 무스버거와 직거래
 - 세븐일레븐과 직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상 수상
- 미우라상의 1년 수입: 1억4천만엔

□ 우수 지역사례 2: “1 집락 1 농장 만들기”

- 농사조합법인 宮守川上流生産組合 照井 대표
- 개요
 - 기타카 쪽 도노시 미야모리지역은 산지가 많고 경지가 별로 없음
 - 경지를 넓혀 규모화 경작을 하기 위해 농가들이 생산조합을 결성하여 공동경영한 사례
- 조합원수: 184명
 - 대표이사 테루이상을 포함하여 185명이 거주하는 집락
- 종업원수: 농사는 4명이 상근으로 전담하여 기계경작하고 있으며, 5명이 비상근으로 가공품 직거래 등을 담당
 -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으로 임금 지급
- 마을의 고령자와 여성들은 두부, 된장 등을 가공생산하여 직판
- 향토요리를 장려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강습회 개최
- 반딧불 축제, 벚꽃 축제 등 주민 화합을 위한 축제 개최
- 경영수익: 2,280만 엔
 - 아직 발전 단계에 있음
- 직판장, 향토식당을 운영함
- 경지면적이 작은 지역이라 화훼, 토마토 등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 작물을 재배. 하우스에서 벼나 미니토마토 묘종을 키운

다음 식재하여 재배기간을 단축하고 경지면적을 줄임

- 정부 지원
 -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하면 50%를 지원해 줌
 - 중산간지역직불제 보조(1년에 1500만엔)

□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노력 전반

- 현 전체적으로 농림수산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. 하지만 성과가 있는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여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함.
 - 이와테현의 총 농업생산액은 현 GRDP 4% 가량이며, 현 예산의 10%정도(약 5,000억 원) 투입
- 고령화에 대한 대응
 - 기업화 경작 유도
 - 60세 이상 농가 60% 가량
 - 고령인구가 홀로 떨어져 살지 않고 모여서 살도록 유도
- 고향(후루사토) 납세
 - 이와테현의 경우, 금액은 적으나 방문~교류~정주와 연계되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함.
 - 단카이세대 1000명 실적
 - ‘고향(후루사토) 납세제도’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로 등록한 지역이나 호적상 자신이 태어난 지역인 고향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지원하고 싶은 지역을 정해 5000엔(약5만원) 이상을 기부한 경우, 개인주민세의 약 10%까지를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
- 현의 문화, 교육,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수립. 4년 마다(지사가 바뀔 때마다) 액션 플랜을 재수립함.
 - 종합정책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담당함.

【아오모리현】

□ 지역 개요

- 위치: 일본 혼슈 최북단
- 인구: 1,397,463명(2008년 기준)
 - 65세 이상인구가 절반 가량에 달함. 고령화 심각
- 산업구조: 농림수산업(1차 산업) 중심
- 일본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생산과 어획량을 나타내는 품목
 - 마늘, 사과, 마(Chinese yam), 도꼬마리(cocklebur), 가리비 양식, 오징어, 광어 등
- 식량자급률(2007): 119%, 전국 4위
- 농림어업 취업인구 감소율('00~'05)
 - 농업인구 ▽7%, 임업인구 ▽32%, 어업인구 ▽6%

□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노력 1: 공격적인 농림수산업 추진

- 배경
 - 농림수산업(1차산업)이 가장 기본 이라는 생각하에 정책 추진
 - 소비의 다양화, 수입증가, 산지경쟁격화, 소비자의 니즈 증대 등으로 판매 여건이 어려움.
-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'2005년 아오모리 판매전략' 수립
- ① 시장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판매 활동 강화
 - 톱 세일즈맨, 지역 물산전, 상담회 등을 통한 소비자 니즈 파악
 - 오사카 시험 마케팅 쇼룸 'Jengo' 오픈
 - 아오모리 현 페어 개최
 - 중국 칭다오에서 사과 판촉
 - 신뢰를 얻은 아오모리 브랜드 창조
 - 현 상품 PR용 로고, 심볼(kimete-kun) 및 테마송 개발
 - 현 주민들에 의한 지산지소 운동의 발전

- 지산지소를 위한 현 주민들의 캠페인 강화
- 협력 가게에서 아오모리 상품 페어의 확대, 개선
 - * 협력 가게(cooperating store; 331개)
- 학교나 보육센터 등에서 지역 식자재의 사용 증대
 - * 학교 급식에서 현에서 생산하는 식자재 사용 비율: 62%
- 파머스 마켓 매출액: 74억 엔

② 안전안심 아오모리 상품 만들기

- 소비자 수요에 맞춘 생산 시스템 강화
 - 팔릴 수 있는 쌀 생산
 - * 안정적인 아오모리 쌀 생산 경쟁력 강화
 - * 아오모리 쌀을 나타내는 고급 ‘쓰가루 로만(Tsugaru roman)’ 만들기
 - *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
 - *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소비자 확보
 - 공격적인 사과산업 실현(10년 이내 1천억엔 판매 목표)
 - * 국내 시장 점유율 50% 이상 확보
 - * 생산량 목표: 480,000ton
 - * 타이완, 중국 극동러시아로의 수출 증대 목표: 30,000ton
 - * 인증 농가수 1.5배 증가
 - * 계약제배에 의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
 - 지역 특산품 만들기

③ 山→ 川→ 海를 연결하는 물 순환시스템의 재생, 보전

- 풍부한 지역자원을 장래에 까지 지속시키는 환경 公共의 추진 (地域力の 재생, 강고한 농림수산업의 연계, 환경의 배려에서 재생·보전)
 - 일본 최고의 건강한 토양 만들기
 - * 8,039ha면적의 52개 ‘organic hometown’
 - * 14개 조직에 의해 28개 품목에 대한 생산이력추적제 도입
 -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, 윤택한 바다만들기

* 산, 강, 바다 일체적 보존

④ 아오모리로부터의 식(食)·농촌 문화의 전달

- 그린투어리즘의 추진
- 食育 현민운동의 전개
- 아오모리 食育선전대

⑤ 농림수산업을 담당하는 혁신적인 경영체 육성

- 후계자의 육성 확보, 신규취업의 추진, 여성 및 고령자의 활용
 - 65세 이상이 마을 전체의 생산 활동에 참여
 - 여성: 산지직거래(포장, 디자인) 어드바이스, 가공에 참여
- 인증농업인이나 농업생산법인 등의 육성과 확보
- 기업 등의 농업 경영 참가 지원
- 농산어촌여성에 의한 起業활동 촉진

⑥ 농림수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만들기

- 바이오매스나 미이용자원을 활용한 산업진흥
- 산학관연계에 의한 부가가치 높은 제품개발
- 농공 연계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

○ 효과: 생산 - 유통 - 판매까지 연계한 수익성 증대

⇒ 농림어업자의 소득향상, 농산어촌의 활성화

○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직판(중간 유통단계를 없애서 판매 단가 낮춤)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언, 컨설팅

□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노력 2: 네부타 축제

(네부타 마을 현장 견학)

○ 일본의 불축제 "아오모리 네부타축제"를 매년 개최

- 그 밖에도 봄축제, 겨울축제, 하코다위크 등 아오모리의 사계절을

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개최

- 일본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전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아오모리 네부타축제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.
 - 20여대의 "네부타"라고 불리는 대형 인형등룡을 사람들이 끌면서 아오모리 시내를 돌며, 축제음악(네부타 바야시)에 맞춰 정열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(하네토)이 인상적임.
 - 유래는, 전국각지에서 전해지는 액땜행사인 나나바타(七夕)에서 등룡을 물에 흘려보내기가 변화되었다고 함.
 - 매년 개최기간 중 방문하는 관객수는 380만명에 달함.
 - 아오모리, 히로사키, 고쇼가와라 이외의 각지에서도 특유의 네부타축제가 개최됨.
- 네부타 마을에는 축제에서 상을 받은 등룡들을 전시함. 특산품 판매점과 산책로 조성



⇒ 전시된 등룡



⇒ 특산품 판매장

【아오모리현 미치노에키】

(사과농장과 연계한 미치노에키 현장 견학)

- 일본 국도변에 자리 잡은 휴게소를 '미치노에키(道の驛)'라고 함. 각 지역의 미치노에키에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(농축수산물 등) 직매장·문화공간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시설 조성
- 각 지역 미치노에키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시설 등을 설

치하고 있으므로, 각자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.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온천지로서의 특색을 살려 숙박 및 족욕을 할 수 있는 온천시설을 특화한 곳도 있고, 박물관이나 미술관, 체험시설이나 캠프장을 설치하여 지역 미치노에키와 연계하여 사람들의 발길을 유인하기도 함.

- 아오모리현의 경우, 유명 특산물인 사과를 이미지화한 시설들이 많음. 지역에서 나는 각종 농산물과 가공품을 팔며,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도 활용됨.
-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설을 조성하고 주로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임.
 - 미치노에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, 주차장, 전화와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진흥 시설, 안내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.
 - 미치노에키의 시설은 노인, 장애인, 자녀 동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배려함. 특히 화장실은 장애인을 배려한 가족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. 또한 역장, 역무원에 의한 친절한 도로 정보와 지역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음.
-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매일 출하해 판매하고, 여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농가가 직접 값을 매김.
 - 오이, 수박, 무, 배추, 메론, 가지, 녹차 등 생산자 마다 내놓은 농산물의 가격이나 양은 제각각. 동일한 곳에서조차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겨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 -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농민 등 상품의 생산자로부터 직거래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이 신선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.



⇒ 미치노에키 농산물직판장



⇒ 미치노에키와 연계한 사과밭



⇒ 직판장 내 농가 사진과 생산물



⇒ 농가별 번호와 바구니

【북해도청 농정부 농정과】

□ 지역 개요

- 위치: 일본 북단부
- 인구규모: 5,571,770명(2008년 기준)
 - 고령화율: 30% 정도
- 산업구조: 1차 산업과 경공업 중심의 2차 산업이 주산업
 - 농가수: 66,690호(2003년 기준)
 - 전업농 비율이 높음. 농업으로부터 수입의 반 이상을 얻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72.6%
- 농림어업 특성
 - 호당 경지면적: 17.2ha(2003년 기준, 다른 현 평균 1.2ha의 14.3배에 달함)

- 농업생산액 1조엔 이상, 전국의 약 12% 차지
- 생산량으로 전국 최고의 농산물
 - 밀 65%, 대두 16%, 팥 85%, 강낭콩 94%, 감자 79%, 사탕무 100%, 메밀 41%, 양파 55%, 당근 29%, 호박 45%, 스위트콘 43%, 무 12%, 우유 46%, 쇠고기 15%, 경종마 94%
- 농업은 밭작물 위주의 대규모 경영을 특색으로 하며, 쌀 외에 감자·콩·팥·옥수수 생산이 많고 사탕무·박하와 근래에는 아스파라거스 등 기호작물 재배 증가
- 네무로·구시로·소야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낙농 외에 돼지·말·면양·채란계(採卵鷄) 등의 사육 번성
- 젓소와 고기소의 두수는 전국의 45% 이상을 점유. 80% 이상을 유제품으로 가공해 전국에 공급
- 가문비나무·분비나무·줄참나무·자작나무 등의 천연림이 많아 임업 지대를 이루며, 제재원목·펄프용재 생산

□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노력

- 농업자원과 그린투어리즘 연계
- 2004년 ‘식(食)’, ‘환경(環境)’, ‘사람(人)’, ‘지역(地域)’의 4개의 시점을 중시한,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상 도내 관계자 공통의 지침인 ‘홋카이도 농업·농촌 비전 21’ 책정
-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5년에 ‘먹거리의 안전·안심 조례’ 제정
- 고령화, 과소화 대책
 -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삿포로시와 삿포로 주위에 거주. 그 외 지역에도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및 지역활성화 지원
- 문화, 교육, 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

- 과소화 지역의 문제는 한국과 유사
 - 병원이나 상업 시설 등은 중심 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, 철도나 고속도로망을 개발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. 비행기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항 개발
 - 산악지역에도 통신 시스템 개발
 - 180개 전체 시정촌에 의사를 배치하였으며, 응급상황 발생시 30분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망 개발. 헬리콥터 이용 가능
- 문화, 교육, 복지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에 부문별 계획 수립
 - 종합정책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

【북해도 대학 이자와 교수】

□ 지역의 과제

- 농업소득 감소
 - 2008년도 북해도 농가의 평균농업수익은 433만엔(부부)
 - 1인당 약 215만엔으로 파트타임 종사자의 연봉과 비슷함
- 후계자 부족, 고령화, 이농
-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농가보조금,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등이 있으나,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따라 잡을 수 없음.
 - 쌀의 경우 60kg 당 1만2천엔에 판매되나, 생산비용이 1만엔/60kg 소요됨. 즉 자가노임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.

□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의 사례

- 병원, 대학, 소방서 등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거점 도시에 설치후 공동으로 사용함.

【북해도 노보리베츠시】

□ 지역 개요

- 위치: 북해도의 남서부, 태평양 연안에 있는 시
- 인구규모: 52,988명(2008년 7월 기준)
 - 65세 이상 인구 25%
- 산업구조: 관광산업 발달
 - 시의 북동부에는 유명한 노보리베쓰온천[登別温泉], 가루루스온천[カルルス温泉]이 있고 주변에 관광산업 발전
 - 군마현의 쿠사츠 온천과 전국 1,2위 경쟁
 - 하지만 노보리베츠시민 5만2천명 가운데 관광업종사자는 300명 정도에 불과. 대부분 이웃도시의 산업단지에 종사
 - 북해도 유수의 관광도시
 - 농업은 낙농, 축산 1개 축으로 개발
- 연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, 이 중 110만 명은 온천에 방문해 숙박함.
 - 외국인 관광객수: 21만 명
 - 한국인 관광객수는 4만 8천명 가량
 - 2008년 가을부터 경기 하락과 신종플루 등으로 관광객 급감

□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노력

- 노보리베쓰 온천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시의 노력
 - ‘mysterious summer night’ 축제를 매일 밤 8시 30분부터 2달간 개최
- ‘사회복지위원회’에서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분야의 사회복지문제를 담당함.
 - 마을 관계자와 사회복지위원회가 협력하여 복지 등 삶의 질 향상

을 위해 노력 중임. 사실상 그동안은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였으나
작년부터 연대를 강화하고 실천의 원년으로 삼음.

- 과소화로 인한 문제
 - 특히 학교 통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등에 교통 문제 발생
 - 폐교는 푸딩공장으로 활용하는 등 재이용 노력
-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
 - 450명 직원들에게 연수를 통해 언어 문제 해소

【북해도 후라노시】

□ 지역 개요

- 위치: 가미카와지청의 남부에 있으며, 북해도의 거의 중앙에 있는
후라노분지의 중심도시
 - 배꼽마을이라는 별칭
- 인구규모: 24,735명(2008년 6월)
 - 기업체가 적어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음. 후계농업인이 배우자
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- 산업구조: 농업이 기간산업
 - 78개 품목 재배, 대부분 작물 재배 가능
 - 양파와 당근의 생산량이 높음. 특히 당근의 생산량은 일본 제
일. 멜론과 수박, 포도 재배
 - 시에서 운영하는 와인공장이 있음.
 - * 1972년부터 와인 제조 시작. 계약 재배를 통해 포도를 생산하
고 구매하여 와인 제조
 - 후라노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 생산
-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,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제1차 산업 종사
자가 현저하게 감소중.

- ‘북해도의 스위스’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연경관 우수
 - 북해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유명
 - 특히 라벤더와 텔레비전 드라마인 ‘북쪽 지방에서[北の國から]’의 배경이자 월드컵대회가 개최된 후라노스키장[富良野スキー場]으로 유명
 - 연간 2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, 주변 지자체와 합하면 약 640만 명이 찾음.
- 후라노시 삶의 질을 아사히가와시(인구 20만, 북해도에서 인구 규모 2번째)와 비교한다면,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비슷하다고 생각함.
 - 후라노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 활력이 넘치며, 농업면에서는 이 모작을 하는 등 앞서가고 있음.

□ 지역활성화 선도 사례: **Farm Tomita(팜 토미타)**

-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라벤더 농원
- 팜 토미타 역사
 - 1897년 홋카이도미개간지처분법에 따라 미개간지를 처분하자 혼슈에 거주하던 토미타(富田徳馬)씨가 미개간지를 사들여 이주한 후 1903년부터 개척을 시작한 것이 농원의 시초
 - 1958년 향료용으로 라벤더 재배 시작
 - 1976년 일본국유철도회사가 달력에 토미타농원의 라벤다를 소개하면서 관광객 증가
 - 1980년, 독자적으로 라벤더 에센셜 오일 생산 시작
 - 1987년에는 라벤다비누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영역을 확대(아이스크림, 카레, 드라이플라워 등).
 - 여름 성수기에는 임시정차역 운행(라벤더 꽃밭역에서 하차)



⇒ 무지개색 꽃밭



⇒ 라벤더 말리기



⇒ 라벤더 가공



⇒ 쉼터

【기초생활권 정책 관련 일본의 사례】

① 3개 정(町) 공동 시스템 운영 사업

- 인구 22,594명의 아이치현 키라츠는 인접한 3개 町의 소규모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갱신 시기가 같으며, 다음에 채용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각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차에 광역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따르기로 함.
- 사업 내용
 - 합병 대응형의 도서관 시스템을 채용하고, 3개 町의 도서관 데이터를 동일서버에 보유하고 창구업무 및 자료관리를 함.
 - 이용자 카드는 3개 町 공통, 어느 도서관이라도 대출·반환 가능
 - 3개 町 도서관의 장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, 인터넷 상에서의

자료 예약 가능케 함.

- 예약 도서의 수취나 반환본 등 자료의 물류환경 정리
- 단독 운영에서 공동 운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자 결정에서부터 시스템의 각종 설정, 도서관 업무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실시하고, 공동 업무 운영 매뉴얼을 작성함.

② 의료 서비스 현황 및 대응

- 일본 농촌지역도 의료 문제 심각
 -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
 - 북해도 네무로에 사는 한 임신부는 인근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매주 검진을 위해 123km 떨어진 곳으로 4시간 동안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
 - 최근 한 임신부는 출산 직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무려 20곳의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
 -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일본 전역에서 105곳의 병원이 분만실을 없앴거나 폐쇄해 8.2%의 감소세를 보임
 -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부 정기검진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 도입.
 - 이와테현 도노시에 사는 한 임신부는 병원에 다니는 대신 휴대전화로 아기의 심장박동과 자신의 혈압 데이터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전송한다고 뉴욕타임스 보도
 -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책 마련
 - 가나가와현은 현내 32개 핵심 병원 가운데 입원 가능한 병원을 임신부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
 - 아울러 19개 현이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키로 했고, 퇴직한 산부인과 여의사의 복직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 모색

【기초생활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】

- 최근 일본의 중소도시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정체, 인구 감소,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주요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.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대부분은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중소기업, 상업 등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.
-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저하로 농업인구 감소 및 후계농업인 부족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업과 경제산업성은 농림수산업과 상업·공업 등 산업 간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(‘농상공 협력’으로 지칭)하고,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. 농림수산업과 지역 중소기업 및 상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고용 확대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는 상생 전략임.
- 농림수산업과 경제산업성에서 제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상공 협력 촉진 방안, 일본산 식품의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 추진, 농상공 연대를 위한 홍보 추진, 법제도적 측면의 검토 등임.
-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중임.
- 인근 지역이 공동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, 중심 거점도시의 병원 등을 광역 단위로 연계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남.
-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관광협회 등 NPO를 조직하여 홍보 팸플릿 제작 및 해외 사무소 개설 등 자구적 노력을 더하고 있음.
- 농업 부문에서는 친환경 안전 생산 기반 구축 뿐 아니라 공격적

인 판매 전략을 마련해 지역 마케팅과 연결하고 있음. 서울 등 해외에 지자체 사무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지역 마케팅에 힘쓰고 있음. 또한 ‘1집락 1농장만들기’ 사례와 기업농에 의한 규모화 경작 사례 등이 눈에 띈.